

부분으로서의 조화 Harmonization as a Fragment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eo Young-Ho

건축을 수용하는 도시라는 유기체는 건축이 만들어내는 집합 공간으로서 건축과 도시의 상호보완과 충돌 그리고 해결이라는 기능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도시 공간을 단일화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사회성을 지닌 인간의 주거장소로서 비추어 볼 때에 제도적이며 물리적인 사회 공간과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문화 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사회적 공간 내에서 행하여지며 이에 따라 파생되어지는 물리적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식은 사회 과학적인 사고와 제도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질 수가 있으나 그에 비하여 도시의 문화적 공간 내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현상적인 문제점들은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그리하여 추상적으로 다루어 질 수밖에 없다.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city changes and evolves (sometimes consciously, at other times unconsciously) through the interrelation, confliction, and resolution with its components - i.e. architecture. This flexibility of the urban space cannot be reduced to a singular concept, but if we would to execute such an impossible task, it should be a dichotomous one - a systematic, physical, social space on one hand, and creative, artistic, cultural space on the other.

The problems of the social sphere, and those of physical substance, can be systematically approached and resolved through socio-scientific analysis and social systems, but those of the cultural field - the phenomenological questions - are



모형도

로 다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은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이며 또한 애매 모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일 수이므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적 공간 내에서 실현되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접근 방식도 공학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상상력의 발현이야말로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상상력이 동원된 건축물의 실현이 창의성에 따르는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기란 쉽지가 않다. 이와 연계하여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공간과 기능의 접근성과 효율성은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데는 필수적이며 이로써 실현되는 건축물의 문화성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연면적

always elastic, uncertain, and can only be dealt in an abstract way. The natural approach to these problems are often illogical, unscientific, obscure, and do require imagination. The works of architecture executed in this field also grasp our attention, since they are, for most part except the technological aspects, a product of someone's imagination. These creations of the human mind, once accepted into the realm of Arts, are hard to follow in a strictly logical sense. Nevertheless, the accessibility to exterior-interior spaces and their functions, the efficiency of their performance, play an important role on deciding whether the building is successful - the general issues and problems of architecture should always be fulfilled in priority, but the re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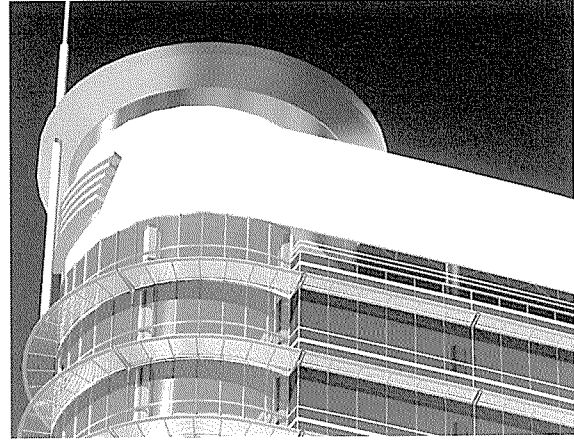


투시도

23,000 평방미터의 지하 5층 및 지상 21층으로 건축된 동아 미디어 센터는 건축 문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다. 건물이 지니고 있는 형태의 독특성이 아니더라도 그 대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에 이미 가능한 건축물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더불어 동아 미디어 센터는 현재 장소의 성격으로 볼 때에 도시적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또한 상당한 공공적 책임을 띤 건축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위치적으로는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가로지르는 세종로와 청계천로에서 오는 교차지점에 놓여있으며 주위로는 덕수궁과 시청 등의 시간을 초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들과 세종문화회관 및 일민문화회관 등의 문화적인 건축물 그리고 많은 사무소 건축물들이 주변에 위치한 장소성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도 사회성과 문화성 및 역사성이 매우 주요하게 어우러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

cultural value of the work will go on to reserve its mark in history.

In this respect, the Dong-a Media Center, with a total floor area of 23,000m² stretched along 26 stories including 5 basement floors, has something new to offer to the culture of architecture. Not only the shape of the building itself but the very location enables us to predict which sort of architecture is possible for this project. Its position within the urban fabric lays heavy burden on the Media Center of its public responsibility - located in the crossroad of Saejong Road, linking Namdaemun and Kwanghwamun, and Chunggaechun Road, adjacent to our historic spots such as Duksoo Palace, the City Hall, Saejong Culture Center and Ilmin Culture Center, and surrounded by



투시도

이러한 장소적 중요성을 가진 대지에 업무 기능과 정보문화공간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론업무의 특징적인 공간으로서 주변 환경과의 사회 및 문화적 기능에 따른 조화와 더불어 언론사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아 미디어 센터의 의도된 건축적 특성은 이미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계천로에 길게 면하며 세종로 쪽으로는 짧게 면한 장방형 형태의 좁고 긴 대지의 특성은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경제적인 해법을 부수적으로 두더라도 그 대지 입지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간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는 동아일보사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한 설계의도와 함께 독특한 형태와 이미지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다.

청계천로 혹은 세종로에서 언뜻 지나치며 받게되는 동아미디어 센터의 이미지는 이 대지와 거의 비

numerous office buildings, it stands at the very place of Seoul where its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s are coexistent.

The project faced multiple tasks of creating a characteristic building, with mixed functions of office and cultural facilities, in such a location of importance, while adjusting to the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of the region, and presenting the right image of a media company. The linear shape of the site, stretched along Chunggaechun Road and narrow on the side of Saejong Road, already drenches the place with a high potential for a visible landmark, even when we exclude the economic issue of securing maximum building space. This aspect of the site, along the design concept of visualizing the prospective image of



투시도

슷하게 교차로의 코너에 위치한 강남의 KPF와 범건축이 협동 설계한 동부 그룹사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매스와 그것에 대한 처리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두 건축물의 코너에 위치한 원통형 매스와 정면부의 완만한 곡선부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내에서 장소적 특성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며 또한 매스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이러한 외부 형태의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수직적이며 사각형태로 일관되어 있는 주변 건축물과는 뚜렷하게 드러난 원통형 매스와 정면 곡선부의 이미지가 지닌 차별성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과의 외형적 차별성은 도시적 맥락에서 볼 때에 부분으로서의 건축적 정체성을 통하여 도시 전체와의 조화를 꾀하게 되는 fragmentation의 한 개념으로서 해석되어

the publishing company, must have been the primary influence on the creation of its overall form.

Seen at a glance while driving through Saejong Road, the building seems to be similar to KPF's skyscraper of Kangnam district, or Dongbu Headquarters, co-designed by Beom Architects. While the true shapes and appearances of these buildings are very distinctive, they emit a similar feel since they are located at a cornering site, and the cylinder-like, curving shape they present on these sides. Though they are situated in very different spots of Seoul, they nevertheless provide a common feeling in the midst of a cityscape whose majority are dim, faceless boxes. This strategy of discrimination of the exterior, within the urban context, is one of fragmentation - to provide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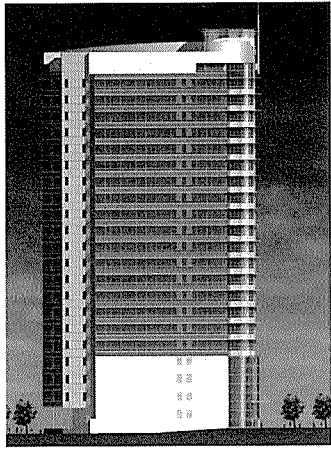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저야 할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의 건축 환경을 주로 설정하고 있는 해체주의와 그에 따른 다양성은 fragmentation이라는 구체화된 건축적 담론을 통하여 20세기의 발달된 복합적인 사회와 문화를 절묘하게 반영하는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도시구조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건축 디자인의 한 맥락으로서 이미 진행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이는 도시라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건축이 도시 공간 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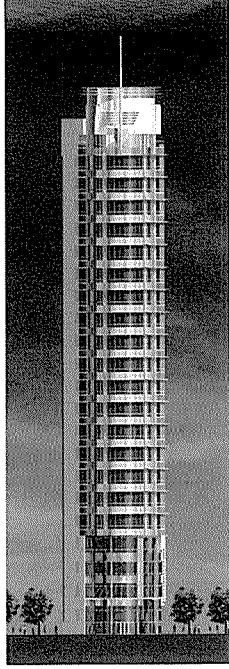
이것은 창의성이 토대가 된 건축 디자인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제시되는 도시적 맥락에서의 건축적 연계성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연계성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출발점 및 방법론으로서 그리고 사회 제도와 공공에 대하여 건강한 환경을 실현하고자하는 포괄적인 해결의

architecture, a component of the city, with a strong identity of its own and thus, ironically, make it a part of the cit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popular back in the 80s and 90s, and its resulting diversity, were executed through the frame of fragmentation, a concrete architectural discourse. It has succeeded in reflecting the complexit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and became part of the fabric of architectural design which is performed within the urban structure. In addition, this suggests how architecture, the very element of the city, can be linked to the context of urba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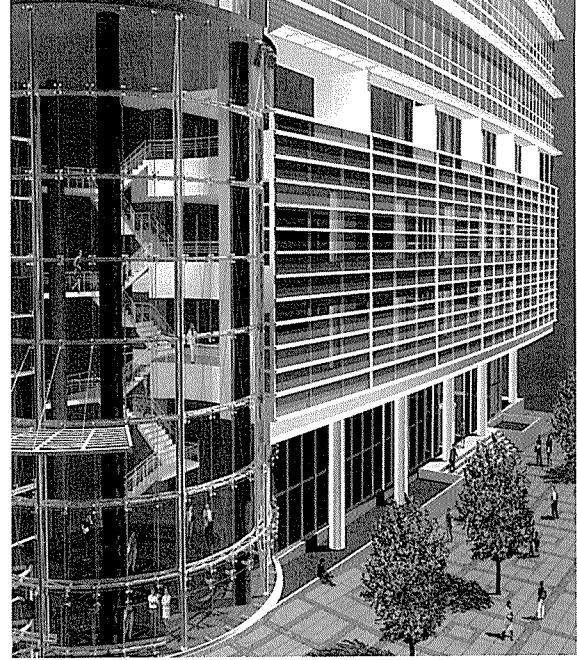
Although the work is one of imagination and obscurity in design, it also becomes, in order to approach it by more realistic and logical terms, important as an architectural link



북측입면도



서측입면도



투시도

장으로서 더욱 가치를 발하게 된다. 특히 도시 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주요한 지역에서 실현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동아미디어 센터의 서측 세종로에 면하여 유난히 드러나는 원통형 매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건물의 전체를 이끌어내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측 청계천로에 면한 정면부분의 완만한 곡선에 의하여 교묘하게 연결되어 수직적 상승감과 진취적 이미지를 살리고자한 건축가의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세종로 부분에서의 랜드마크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청계천로를 따라 이루어진 일반적인 상업 건물과의 건축적 연결성을 차별화 시킴과 동시에 세종로에서의 건축적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대지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요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남측 정면의 매끄러운 곡선 이미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곡선을

with the urban context. This connection is the starting point and method in the design of the building, and, as an expansive field of creating healthy environment against social systems and public interests, it becomes all the more meaningful. This is even more true of an architecture standing in such a site of historical, social, cultural magnitude.

The cylinder-shaped volume on the western edge of the building, facing Saejong Road, is the active agent in its establishment of a wholeness; this is then subtly linked to the curving motif of the front facade, from Chunggaechun Road's point of view, and melts into the designer's intention to provide a vertical orientation. It is, without doubt, an impressive landmark - it is at first a clear departure from the mediocre styles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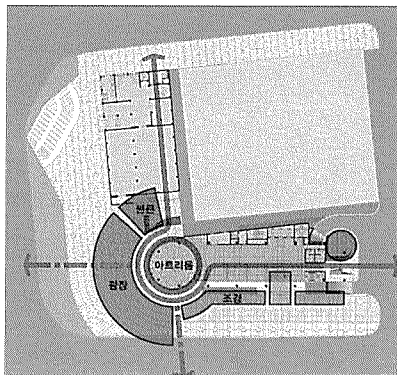
상기시키는데 차별화 된 원통형 매스에서 보여지는 이질성을 완화시켜 줌으로서 보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주위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두드러지게 돌출된 외부의 차양형태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동아미디어 센터가 담고자 하는 전반적 특성을 성가시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러한 성가심은 미디어 센터의 부 출입구가 있는 주차장 진입부 쪽의 쉽지 않게 접하게 되는 말끔하고 세심하게 처리된 외벽 부분과 대조할 때 더욱 그러하다.

청계천로 부분에 위치한 남측 정면의 보행자 공간 부분에서 처리된 주 출입구와 이와 연결된 인간적인 스케일의 건축 요소들은 미디어 센터의 거대한 매스를 복잡한 도시환경과 차량의 소음 속에서도 친근감이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은 자연스럽게 원통형 아트리움의 출입구 쪽으로 보행자를 연결시켜 준다. 규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Morphosis의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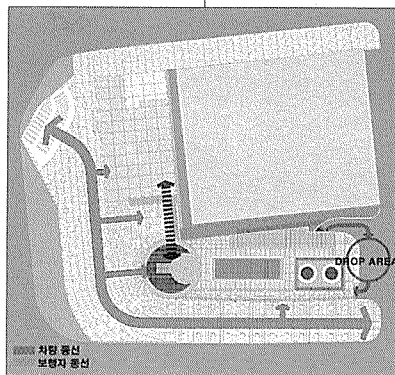
neighboring buildings, and then enhances its architectural presence from Saejong Road.

The images of waving lines on the south at once reminds us of curves from Korean traditional arts and eases the main body's tension with the perhaps-too-distinctive cylinder. This method of releasing contrasting aspects, however, unfortunately acts against the uplifting strength of the project, since the horizontal elements tend to stand out too powerfully. Comparing it with the facade of the sub-entrance's side which displays a more refined look, the difference becomes appa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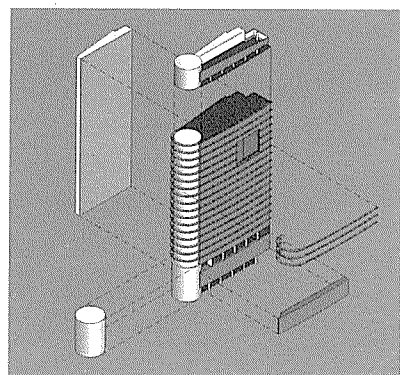
Notwithstanding the massive volume of 21 stories in one of the busiest streets of Seoul, the Center succeeds in providing friendly elements of human scale, starting from the



토지이용 계획도



동선 체계도



형태 구성도

Cedar's Sinai Comprehensive Cancer Center의 길고 좁은 로비를 언뜻 연상시키는 미디어 센터의 길고 좁게 마련된 지상 층의 로비는 Cancer Center의 로비 외벽을 따라 길고 높이가 개방된 천장부분의 아트리움과 비교할 때에 남측 부분에서의 천장부분이 조금은 답답함을 전달한다.

그러나 원통형 아트리움의 출입구와 남측 정면의 주 출입구 및 주차장 쪽의 부 출입구에서의 진입에 따른 내부 진입공간의 서로 다른 특성은 미디어 센터의 크지 않은 로비 공간에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로비부분의 연출된 다양한 경험적 공간은 단순하게 처리된 바닥의 패턴과 더불어 하이테크적인 실내 디자인과도 무리없이 조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건축에 있어서의 사회 및 문화적 기능성은 개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공간에서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부각시켰으며 그리하여 도시라는 거시적 실체는 부분으

main entrance for pedestrians in the south. This space leads the passers-by to the atrium, whose long and narrow lobby reminds us of, in spite of their apparent differences in scale, a similar lobby in Morphosis's Cedar's Sinai Comprehensive Cancer Center. But whereas the latter has an enormous height, the former is confined in the vertical dimension also, and thus seems to be a bit oppressed. But since there are three ways to enter - one from the atrium, the other from the southern main facade, and the third from the parking lot - the lobby, though rather small in scale, provides the users with a variety of spatial experiences. The simplistic pattern of the lobby floor is in accordance with the overall high-tech atmosphere of the interior.

로서의 건축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도시적 맥락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왔다. 이것은 건축의 실현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공공적인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딴 섬이나 고립된 산 속에서 홀로 실현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도시 속에서 실현되어 질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미디어 센터가 이루어낸 공공성과 지역성은 장소가 가진 특수성과 더불어 도시 공간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 및 문화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The social and cultural function of architecture has emphasized its public and regional values in the urban context, which provided the city with a way to deal with its architecture as its composing elements. This means that architecture is only realized as an element of the whole, observ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This involves more architecture of the city than those in isolated islands or outback mountains. In this respect, the public and regional aspects of Dong-a Media Center will leave a meaningful vestige, as an element of the city, in an important spot of the metropolis, both socially and culturally.